

복구, '전국 첫' 추석맞이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관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법정 차상위계층 4만여명 1인당 10만원씩 '광주상생카드'로...내일부터 신청

광주 복구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국 최초로 민생 안정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한다. 8일 복구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지급 대상은 지난달 15일 기준 복구에 주소

를 두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4만여명이다. 단, 지난달 15일 기준 복구에 주소가 없었다 하더라도 신청일 기준 타 지자체로 주소를 옮긴 전출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생활안정지원금은 고물가·고금리 등 장기간 지속된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광주상생카드'로 지급하며 생계 부담 완화와 함께 지역 상권 소비를 유도하는 등 내수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된 '추석 민생안정 특대책'이다. 특대책 추진을 위해 복구는 올해 본예산 편성 시부터 정부 긴급 재정 기조에 맞춰 행사성 경비, 단순 소모

성 경비 등의 감액과 신규 사업에 대한 일몰제·격년제 검토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며 생활안정지원금 재원을 마련했다. 이러한 가용재원으로 기획된 생활안정지원금은 추석을 맞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과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문인 복구청장의 결심 아래 지난달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됐고 이달 6일 복구의회 심의과

정을 최종 통과함에 따라 본게도에 올랐다. 지급 기한은 10월31일까지이나, 복구는 추석연휴 전까지 생활안정지원금이 지역 상권에 최대한 풀릴 수 있도록 이달 10-13일을 '집중 지급 기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주민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 작성 후 지원금(광주상생카드)을 수령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문인 복구정장은 "기본적인 삶을 함께 책임지는 사회 실현을 위해 계획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에 뜻을 모아주시는 지역 국회의원과 복구의회에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생활안정지원금이 유난히 뜨거웠던 올여름 폭염과 생계에 어려움을 버텨온 저소득 이웃과 소상공인에게 민생의 시름을 덜어줄 단비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안재영기자

“어르신 폐지 단가 보전” 광산구, 지역 최초 시행

'kg당 80원' 단가 하락엔 차액 지급...하루 최대 150kg

광주 광산구가 지역 최초로 '폐지 줍는 어르신'의 안정적인 수입 보장을 돕고자 '폐지단가 보전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8일 광산구에 따르면 이달부터 자체 예산 3천만원을 들여 폐지단가 보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폐지단가 보전 지원사업은 '1kg당 80원'이란 기준 단가보다 시세가 떨어지면 그 차액을 1인당 하루 최대 150kg까지 구비로 보전한다. 가령 80원 기준 하루 150kg씩 5일간 폐지를 수집할 때 수입은 30만원이나 kg당 단가가 60원으로 낮아지면 2만5천원에 그쳐, 이 때 보전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차액 7만5천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폐지단가 보전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산구 청소행정과(062-960-8485)에 문의하면 된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올해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 관내 폐지 수집 어르신은 122명으로 파악됐으나 광산구는 실제 인원보다 많을 것으로 보고 지역 고물상 등에 사업 참여 협조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민생이 힘들 때 취약계층의 고통과 어려움을 더욱 클 수밖에 없다"며 "폐지단가 보전 지원사업과 더불어 폐지를 주워 생활하는 어르신, 시민의 생활 안정을 뒷받침하는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육근기자

기준단가 80원은 광산구의 지난 5년간 평균 폐지단가와 타 지자체 사례를 고려해 산정됐다. 지원 대상은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폐지를 수집하는 만 65세 이상 시민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다.

신청 방법은 고물상에 폐지를 판매하고 발급받은 판매영수증을 월 1회 거주지 인근 동 행정복지센터로



아이클릭아트이미지.



지난 7일 오후 광주 동구 충장로4가 혼수의 거리에서 한복 패션쇼가 열려 참가자들이 무대를 걷고 있다. /김애리기자

충장로 혼수의 거리서 '한복 패션쇼' 눈길

해외 아티스트 100여명 참석...외국인 모델 등 시선 끌

광주 동구 충장로 혼수의 거리에서 명인들이 손수 제작한 한복의 멋스러움을 널리 알리는 패션쇼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8일 동구에 따르면 전날 충장로 4가 혼

수의 거리에서 '한복 패션쇼'를 선보였다. 패션쇼에는 '2024 세계 여성미술연합 페스타'의 주인공인 해외 아티스트 100여명이 참여했다. 충장로 4·5가는 한복 점과 양장점, 귀금속 업체 등이 밀집한

웨딩 산업 특화 지역으로 과거 '혼수의 거리'로 불리며 성황을 이뤘다. 그러나 최근 결혼 트렌드의 변화와 지역상권 침체 등으로 소비자들의 발길이 뜸해진 상황이다. 이에 동구와 상인들은 혼수의 거리 방문객의 관심을 유도하고 온라인과 다른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고자 충장 상권 살리기 사업(충장르네상스) 일환으로 이번 패션쇼를 기획했다. /안재영기자

서구-영암, 지역 공동 발전 '맞손'

광주 서구는 "최근 영암군청에서 우승희 영암군수와 김이강 서구청장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공동 발전을 위한 우호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도시는 ▲행정·경제·문화 등 공동 관심 사항 관한 지

속적인 교류 협력 ▲다양한 시정시책 공유와 인적교류 등을 통해 우호 증진과 상생 발전 ▲예술, 체육, 농·특산물 공동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 적극 협력 ▲청소년 및 민간자원 교류 활동 적극 지원 통한 상호이해와 우의 증진 기여 등을 약속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양 도시가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자원을 공유하며 구정 구호처럼 함께 우뚝 서고 더 크게 상생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9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개최하는 '추석명절 선물용품대전'에 우호 교류 협약 도시인 영암군, 보성군 농특산물 판매 부스를 제공하며 적극적인 판로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주성학기자

실리를 따진다면 가성비 좋은 피닉스입니다!

1. 믿을 수 있는 100% 국내공정

2. 신속하고 확실한 A/S

3. 합리적인 가격에 고퀄리티 품질



피닉스 K-07
럭셔리 중상급자용



피닉스 K-06
중상급자용



피닉스 K-03
초보 중급자용



피닉스 G-01
초보 입문자용

FREE 전국 택배 무료 배송!

중고 골프채 보상 판매!

영무SP sports

062) 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 (백운동 644-33)

www.sunparkgolf.com

